

### 화장, 필연적 선택

좁은 국토에 묘지가 너무 많고 걱정이 태산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은 귀신들이 산 사람을 밀치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수군거린다. 모두 매장문화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 전국토의 묘지화 막자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화장 및 납골문화는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묘지문화는 의연히 매장이었고 산소였다. 그것은 국조 단군 왕검에서 시작되었으며 국난으로 정체가 흔들리자고 생각될 때마다 회귀하였던 굳건한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

왕검은 환웅의 아들이요, 환인의 손자이다. 환인은 천제, 혹은 하늘이라 했으니 한국인은 하늘의 자손이 된다. 그 하늘 민족의 국조 왕검은 황해도 구월산의 산신이 되었다. 산이라는 하늘사다리를 타고 할아버지가 타는 하늘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하늘민족이 국조의 선례를 따라 산에 묘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그것이 후손에게 전해진 매장문화, 특히 산소의 원형회귀적인 모습이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마다, 오랑캐와 왜구가 이 땅을 어지럽힐 때마다 단군왕검은 불사조처럼 부활했다. 정체를 대한 민족적 자각이 한국인 특유의 조상숭배 사상과 중국 전국시대의 음양술, 도참사상까지도 어렵지 않게 결합시켰다. 나아가 건물의 위치를 가능케 한 풍수지리가 오행사상과 함께 죽은 조상을 길에서 매공면 자신이 흥한다는 관념으로 보편화한다. 신라시대 이미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상례화할 정도이니 조상숭배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라 할만하다. 또한 모든 종교가 매장문화를 옹호해왔다.

불교에서는 인도 전래의 만다라, 안트라 등의 영향으로 신성 의식화한 청정만다라사상이 이 땅에서 산천만다라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므로 매장문화에 대한 대가 대승불교에서는 조상(遺像) 조탑(造塔) 및 사경(寫經)의 공덕까지 조상의 영가천도와 연결시켰다. 유교의 영향으로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이효의 시작이라 하여 화장(火葬)이나 부검, 나아가 장기기증까지 꺼리는 것이 한국인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되었다. 그로써 매장 및 산소문화는 뿌리가 깊다. 그렇게 이 땅의 귀신문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넘보는 실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인 귀신의 동태를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기독교야 아예 제사까지 부정한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대로 괴(怪) 력(力) 난(亂) 신(神)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현실노선을 표방한다. 특히 불교는 근본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처님은 색이 있다면 그것은 악마요, 가시

요, 방해물이요, 괴란물이라 했다. 그것을 받아들면(受) 그것이 악마요, 방해자요, 괴란하는 것이다. 김동화박사는 마군(Mara)은 내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잠망망상의 시적묘사라 단언한다. 원효님은 기신론에서 마귀와 귀신이라는 상(相)은 내 마음

이 만든 마상(魔相)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 밖에 별다른 마상(魔相)이 없다고 마음먹으면 그러한 상(相)은 즉시 사라진다고 했다.

매장풍습 자연훼손도 화장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꼭 불교적 문화의 하나라는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장은 이제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매장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이같은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국민들이 매장문화에 대해 각성하기 시작했다. '화장유연서약' 캠페인 시인·종교단체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호화분묘와 호화장례식을 치르는 사회지도층과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삶의 시각과 죽음의 방식은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삶의 환희와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 것도 살아있는 우리와 자손들의 몫이다. 삶을 보다 값지게 영위하면서 보다 넓은 국토를 후손에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김영재  
(충남대 철학과 강사)



◇ '물 부족시대 남의 일 아니다' 불가불이 장기화되면서 경북 영도 지역의 운물량이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가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아껴쓰고 환경을 보전하는 길만이 물 부족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다.

### 한국도 물부족 국가 2006년에 4억톤 모자라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물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2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 22일로 8회째를 맞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 환경정량 2000'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 천년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환경과제로 물 부족 위기와 지구온난화를 꼽았다. 세계적으로는 물이 없어 숨지는 어린이 수가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어설 만큼 물 부족 문제는 인류의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 국제인구개발연구소에서는 지난 93년에 우리나라를 이미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해 놓았으며, 현재 추세라면 2006년에는 물 부족량이 4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물 낭비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1인당 수돗물 급수량이 하루 395ℓ로 선진국(독일 132ℓ, 덴마크 246ℓ, 프랑스 281ℓ)보다 훨씬 높은데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에 의해 도적이 되고, 행위에 의해 지배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물이 우리에게 혜택을 줄지, 아니면 고통을 주게 될지는 분명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물절약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관련기사 21면)

### 화풀이로 살인...재미삼아 도둑질

## 청소년 '이유없는 범죄' 증가

얼마전 한 중학생이 저지른 '무동기 살인'은 온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가정 폭력에 따른 화풀이 범죄였지만 살해된 여중생과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이유없는 범죄'다. 바로 이같은 '이유없는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재미삼아'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화풀이'로 대낮에 살인을 하는 등 청소년범죄는 이제 문제아들만의 몫으로 돌릴 수 없게 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의 25%가량이 집단동조살인이나 총동, 호기심 등 사소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여고생 2명은 소매치기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충동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난 1월에는 비디오와 화장품을 훔치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11월에는 영화를 모방한 주유소 금품탈취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났다. 수도권 지역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에서 총동적으로 저질러지는 절도사건이 하루 평균 10건씩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을 못살게 구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삭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이번 여학생 살인사건은 '불특정인'이 범행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10대 총기난사사건과 흡사하다.

전문가들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매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청소년 세대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진단하면서도 가정불화 및 임시위주교육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욕구불만을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는 신세대의 세대 때문이라거나 폭력적인 컴퓨터게임에 몰든 결과라거나 자기 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질타는 사회의 책임회피라는 견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다. 특히 기성세대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상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구조와 지식주입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는 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유없는 범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간을 지적으로만 교육시키고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것이 된다"고 경고했던 前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말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사경〉에 "세상의 온갖 바르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과정을 보는데, 여러 바르지 않은 종류의 일과 여러 바르지 않은 부류의 일이 다 마음이 앞장서 인도하는 탓으로 일어남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악하고 바르지 않은 일들이 다 그 뒤를 따라 생기는 까닭이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바르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이다.

〈중아합경〉에는 "바른 소견이 생겨나는 인연은 원인(因)과 조건(緣)에 있다. 남에게 듣는 것과 자기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니라"라는 가르침이 있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결국 10대들의 '이유없는 범죄'는 기성세대 대한 경종인 것이다.  
한영우 기자(mwhan@buddhapia.com)

### 대학 음주문화 '바꾸자 바뀌'

#### 신입생 환영술자리 등 해마다 사망자 나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대학가의 빼어난 음주문화가 세간에 회자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을 맞이해도 이같은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도 관습처럼 되풀이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일 지방의 모대학에 입학한 한 남학생은 고교동문 선배들을 따라 학교 앞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했다. 과도한 음주가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또 모대학에서는 술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맞은 한 후배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진 사고도 있었다.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음주강요로 사망한 대학생은 모두 10여명에 이른다. 이밖에도 개학을 맞아 신입생 환영회와 동아리 모임이 늘어나면서 선배들이 강제로 들이붓는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법법처경〉에 "술은 독약이고 독수(毒水)이며 목기(毒氣)가 된다. 도덕을 흐트러뜨리고 망령된 환위로 재앙에 이르러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 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문제는 적당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음주는 결국 경정말음대로 독약이고 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마약사범 1만명 넘었다

#### 대검찰청 '백서' 발간 30~40대 크게 늘어

IMF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좌절계층'이 늘어나면서 히로코, 헤로인 등에 손을 대는 30~40대의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났다. 대검찰청이 21일 발간한 '1999년도 마약류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단속 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1만589명으로, 98년 8350명에 비해 26.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지난 95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30대는 5년 사이에 2배, 40대는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전체 마약사범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경찰은 "경쟁사회에서 밀려난 심리적 좌절감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나, 실직자 또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마약류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인은 대부분 불안과 초조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탈에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식경〉을 보면 탁발에서 밥을 얻지 못한 부처님이 '밥을 빌 때 일곱 짐을 넘으면 안된다'는 '칠가식(七家食)'의 규칙을 어기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 탁발을 할까 하는 심리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은 결국 '식욕의 유혹'을 뿌리쳤다. 그것은 타율적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배를 채우고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규칙과 양심때문에 다시 밤 얼어 나가기를 포기한 부처님이 '바보'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바보'같은 부처님을 성인으로 받들고 있다. 아무리 처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마약에 의지해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것은 비겁한 자질을 '부처님의 선택'은 깨닫게 해준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공포와 동상을 여의라는 내용이 간명히 제시돼 있는 〈반야심경〉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국태안민과 남북평화통일 및 동해안 풍어기원

### 용왕탱화점안 및 준계방생 대법회

귀의 삼보하유고  
만물이 악동하는 양춘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관대변한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지혜부덕이 항상 수반할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본 약수암에서는 세천년 경진년(庚辰年) 경진월(庚辰月) 갑진일(甲辰日)을 맞아 중요무형인간문화재 제48호 이만봉 큰스님을 중명 대법주사로 모시고, 중요무형인간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 대덕스님들의 불교 전통의식 집전으로 국태안민과 남북평화통일 및 동해안 만선풍어기원 용왕탱화점안 및 준계방생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이 뜻있는 법요식에 무이 동참 기원하시어 모든 고택과 입장을 소멸하시고 재앙을 물리치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이 이루어 무량하신 부처님의 불공과 가호를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 음

- 1) 일 시: 불기 2544(2000년) 4월 16일(음 312) 일요일 오전 10시
- 2) 용왕탱화점안: 거진 약수암 법당 (오전10시)
- 3) 방생법회장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 부두(오후1시)
- 4) 중명 대법주: 이만봉 큰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 5) 불교전통의식: 영산재 전수 대덕 큰스님(중요무형인간문화재 제50호 전수자)
- \* 방생축원접수: 4월 10일까지 본사실 중무소에 접수 바랍니다. (축원문 및 친도문)
- ⑥ 문의및연락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로 234-1 (재)대한불교 일불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중무소  
전화 ☎ (0392) 882-1933/1707 (주지실) ☎ (0392) 882-3125 (홍무실)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해 이 호성 합장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숙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숙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성복지원 임행선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정인진숙(蔞蔞蒿)을 여러 저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북분자산말기 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을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숙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골절 등에 특효라는 홍보세를 스님들이 직접 왕과 불세를 뿌리고 재배한 도중중화씨원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주문 전화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sook.co.kr

### 남양주시 최고의 대가람터

▶ 소재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 면적: 2,000평 ~ 10,000평  
▶ 가액: 상담후 결정  
▶ 연락처: 0346)511-0433  
017)302-2550  
017)391-1003

▶ 특징  
1. 46번 경춘국도에서 직선 1Km  
2.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기반시설 완료  
3. 송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마석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4. 정남향 대지

현 대 불 교 신 문 일 본 구 독 문 의  
日本 大阪市 生野區 鶴橋乙丁目 4  
現代佛敎新聞社 日本國支社  
전화 (06) 67411923

전원주택지로 개발이려다  
신세가 너무 이롭다워  
웨손시킬수가 없었습니다.